

제 3 교시

논술

성명

수험 번호

1.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A국 정책>과 <B국 정책>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 주장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 (2) 이유를 제시할 때 지지 또는 반박의 근거로 <자료>를 활용하시오.
- (3)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시오.
- (4) 자료의 출처를 표시할 때는 ①, 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사례>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면서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data)가 형성 및 축적된다. 더불어 플랫폼(platform) 기업처럼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데이터가 혁신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된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및 불평등 문제도 심화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생산 및 보유에 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 플랫폼 기업과 신생 스타트업(start-up) 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다.

<A국 정책>
A국은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첫째는 ‘데이터 강제 매수’이다. 특정한 기업이 중요한 데이터를 독점하는 경우, 국가가 데이터를 강제로 매수하여 이를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데이터 세(稅)’를 신설하고 데이터를 보유하는 양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B국 정책>
B국은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첫째는 ‘데이터 시장 활성화’이다.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여 자율적인 시장 질서에 의해 데이터 보유를 둘러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 데이터 풀(pool)’ 조성이다. 공공 단체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데이터를 기부 받아 자율적으로 공공 데이터 풀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데이터 풀을 조성한 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공유를 장려하고자 한다.

<자료>

- ①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본래부터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탁월한 능력으로 획득한 결과에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
- ② 물건과 데이터는 엄연히 구별된다. 데이터는 환경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환경이 우리 모두를 위한, 모든 세대를 위한 자산이 되는 것처럼 데이터 역시 공공재로서 어느 일방이 독점할 수 없다.
- ③ 시장은 합리적인 체계이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무질서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 ④ 자신의 의지와 노동으로 획득한 결과물은 자기 생명처럼 자신의 소유물이 된다. 이러한 소유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 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자율성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인간은 존엄해질 수 있다.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성을 억압하면 인간은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⑥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자연계의 진화처럼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점으로 다양한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혁신은 실현될 수 없다.
- ⑦ 오늘날 데이터는 물건처럼 소유, 이용,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 존중 원칙은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⑧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감정을 지닌 존재이다. 때로 감정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장을 광기의 늪으로 몰아넣는다.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십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시오.
- (2) <사례 1>의 수문장 및 <사례 2>의 배심원들의 판단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이때 (1)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관점>을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3) 관점의 출처를 표시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십시오.

<사례>

<사례 1>

도적 떼가 들끓는 무법천지의 시대에 한 도시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도적들은 도적들의 살육과 약탈, 방화 등을 피하기 위해 새 법을 만들었다. 도적들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은 도적들이 도시에 진입할 수 없도록 즉시 성문을 닫아야 하고, 도적들이 물러간 것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닫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일부 시민들이 성 밖에 나갔다가 도적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소식이 성 안에 전달된 후였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도적들에게 희생될 것을 두려워한 시민들이 수문장에게 성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적들이 도시 부근까지 가까이 접근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수문장은 새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한다.

<사례 2>

경제 활동이 융성해진 상공업 시대를 맞아 한 도시가 재산 범죄를 특히 무겁게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들었다. 새 법은 높아진 개인의 소유권 존중 의식을 반영하여 피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절도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도시의 마을 주변에는 미개척 토지들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땀과 열매, 야생동물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얻었다. 그 토지를 소유한 도시의 몇몇 시민들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마을 사람들의 출입과 이용을 막았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이 새 법에 따라 기소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재판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사실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에 못 미치게 낮추어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사형을 선고받는 것을 모면하게 했다.

<관점>

- ㉠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든다. 입법자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예견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법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가 불합리한 때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는 입법자가 간과하거나 지나친 부분을 알았다면 어떻게 입법했는지 생각해 보고 법이 추구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정의를 이루도록 법의 문구를 바로잡아야 한다.
- ㉡ 입법 단계에서는 여러 법들을 놓고 비평할 수 있어도, 일단 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법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와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시민의 품성을 고양할 목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무질서와 폭력을 방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전자의 경우 법의 불완전함은 곧바로 드러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법의 엄격한 집행만으로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 ㉢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다. 입법에서는 물론 법의 해석 및 집행에서도 공동선이 최고의 가치로 작용한다.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므로 법의 협소한 시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대우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누구든 자기 판단에 따라 법의 문구에 반하여 행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을 문구대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공동선에 큰 해악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현저한 부정의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의 분량 미달과 분량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됩니다.